

여성교육·계몽...광주부인회 1921년 창립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92>여성단체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광주여성단체는 33개 회원 수 4만16천412명(광주여성단체협의회 24개 3만9천337·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8개 2천75·광주YWCA 5천명)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광주최초 여성단체는 1921년 7월30일 오후 1시 서광산정31(광산동66)번지 흥학관에서 창립한 광주부인회다. 회원 수는 60여명으로 회장 석진형 부인, 부회장 홍우만 부인이다.

1904년 판 박선홍 광주1백년 3권 광주·전남개화연표에는 1921년 7월3일 조직, 회장 홍선경·부회장 홍은희, 총무 김필례다. 1922년 4월25일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11월5일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조직도 적혀있다.

1992년 발행, 광주YWCA 70년사를 살펴보면 광주YMCA 건물 한 칸에 사무실이 있다가 1988년 해산된다. 1945년 9월14일 금정교회 부속유치원에서 200명 넘게 참여, 재건총회를 개최한다. 회장은 목포출신 김정현, 부회장은 광주최초 여의사로 1928년 산부인과를 설립한 현덕신이다.

1946년 6월 광산동 79번지 대지 74평 2층 목조 64평 건물에 든다. 1층은 가게 3칸, 2층은 10여평 홀이다. 전남도청 부녀계장(1947-1954) 조아라가 총무였던 독립축성(促成)애국부인회가 머물면서 1947년 안중근 의사 추도회를 주최한다.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는 미군세탁소와 우유급식소·수예점을 운영하고, 한국전쟁 때 광천동 피난민수용소 봉사도 나갔다.

토지이력서는 1912년 서광산정 32번지 338평



1952년 광산동 79번지 광주YWCA 광산동 회관(광주YWCA70년사1992)



1952년 성빈여자 마당에 텐트치고 공부하던 호남여숙 학생들(소심당 조아라도록2020)

은 어곡(魚谷)땅으로 1930년 광산정 79번지로 변경, 1954년 대한민국 소속 이후 10개로 분할돼 79-4번지가 1956년 서울 명동1가1-3번지 대한민국 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김활란)터다.

1952년 7월1일 전쟁고아(소녀) 보호를 위해 성빈여사가 개설된다. 1953년 전대의대 앞 남동 70

식을 한다. 총 경비는 6천396만7천448원이다. 1966년 부설 가정법률상담소를 연다. 1984년 유동 107-5번지로 이전한다.

1963년 한국부인회 전남지부가 결성된다. 1967년 12월 사동 177-35번지에 전남부녀회관이 준공된다. 지하 1·지상 4층 연면적 1천44㎡ 철근콘크

센터가 된다. 2016년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전환, 현재 인원은 42명이다.

1996년 광주시청에 사회복지여성국이 생긴다. 2000년 총장로4가 53번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여성·주체·삶(아름지 않은 상처, 그러나 다시 생활로)을 발간하고, 광주시청 여성정책과는 광주여성발전사를 펴낸다. 2015년 광주문화원연합회는 광주여성운동을사를 발행한다.

광주 서구청 앞 농성동 166-3번지에 광주여성단체협의회(3층)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층)이 위치한다.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365㎡ 건축·연면적 215·1천26㎡ 지하 1·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로 사용승인은 1988년 7월2일이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는 1986년 12월 설립총회를 한다. 1996년 6월 개관, 1999년 법인허가와 다음해 비영리단체로 등록한다. 1983년 1회 광주여성대회를 광주공민 시민회관에서 열고, '새 시대의 주역 바로 여성'을 주제로 이동원이 주제발표를 한다. 최초 무등여성대상도 수여한다.

광주여협합창단·영글림이 농성동 청내에 있고, 월산동 1050-3번지 새마을회관 7층 새마을부

녀회, 광산구 우산동 1588-2번지 농협광주지역본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운암동 294번지 대한간호조무사회, 북구 우산동 1606-8번지 안보회관 재향군인회여성회, 오룡동 1113번지 어린이안전학교를 끼고 있다.

1991년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농성동 391-49번지 광주여성의 전화, 624-14번지 화교협회5층 광주여성노동자회, 동천동 588번지 광주여성회, 주월동 957-4번지 광주여성인권센터, 북구 우산동 609-1번지 광주여성민우회, 신창동 1241-8번지 광주여성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 재단법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금남로 2가 20-2번지 무등빌딩에 위치한다. 2011년 광주전남 호남동 23-2번지 대원빌딩 8층에서 광주여성재단으로 출발, 2019년 현 명칭, 이듬해 지금 터로 왔다. 3층 광주최초 여성전시관 4실과 4천890㎡ 소장 성평등 북카페 은새암이 있다. 2021년 10년의 기억과 기록(더광주2011-2021더성평등)을 비롯해 광주여성사3권(전근대편2019·근대편2020·현대편2021)·생애구술사2권(방직공장노동자편/뽕을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2022전통시장여성상인편/시장은 나의 힘2023), 연구보고서 144권을 발간했으며, 36명이 근무한다.

제1전시실(Herstory)에 '광주여성의 발자취'가 연대순으로 정리·게시돼 있다. 광복 이전은 1922년 광주부인조력회 결성·사립 여성이얼학교 설립, 1982년 광주도시제사공장·종연방직 여성노동자투쟁이 들어온다.

광복 이후는 1954년 대한부인회 광주지부 결성, 1956년 여성구호사업·계몽활동 금화여성회 발족, 1963년 한국부인회 전남지부 발족, 1967년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설립, 1978년 송백회 결성, 1983년 오월여성회 창립, 2021년 광주·미얀마여성연대결성이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소통·참여단·단체정보/시민사회단체편람 2022년편을 살핀다. 여성관련 단체가 53개 정도다. 대표·주요임원·조직구성·회원(명)·주소·전화번호·설립일·법인허가등록일(해당부서)·형태·연혁·설립목적·주요활동이 수록돼 있다. 실재가 중하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단·단체정보/시민사회단체편람 2022년편'을 살펴보면, 여성관련 단체는 53개 정도로 대표·주요임원·조직구성·회원(명)·주소·전화번호·설립일·법인허가등록일(해당부서)·형태·연혁·설립목적·주요활동이 수록돼 있다. /김경수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해방 이후 미군세탁소·우유급식소 운영 전쟁고아 보호 위해 성빈여사 개설...야간중학과정 호남여숙도 1989년 양림동에 광주여성회관...2016년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3번지 134평에 목조건물 48평으로 옮긴다. 1955년 12월 연건평 110평 2층 벽돌건물을 신축한다. 1952-1972년 야간중학과정인 호남여숙 졸업생은 1회 18명을 포함 18회까지 479명이다.

1959년 대의동 74·75번지(전일245빌딩 동편) 대지 250평을 구입, 5월30일 기공식을 거행한다. 1960년 11월5일 연건평 340평 4층 건물 준공, 봉헌

리트슬라브조 건물이다. 1-3층 면적은 각 286㎡이고, 4층과 지하는 104㎡와 82㎡이다. 개관식 때 육영수 영부인이 참석했다.

1971년 광주시청에 부녀아동과가 설치된다. 1989년 2월 양림동 108-2번지에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2천126㎡ 규모로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이 선다. 2000년 치평동 1162번지로 이전, 여성발전



1967년 사직공원 어귀 사동 전남여성회관 개관식 때 육영수가 참석했다.(도정10년사1973)

광주매일신문 '학교폭력예방문화조성' 연중 캠페인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협의회'를 가동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젠더를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 온 광주매일신문은 '장난도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합니다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